

# 사회복지사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글 : 김수연 객원기자  
자료제공 : 이랜드복지재단, 중부재단

## 사회복지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인원이 15만 명, 한해 1만2천여명 배출, 그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50%이상이 이직을 고려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왜 몸과 마음에 상처입고,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절망하면서 burn-out 되는 것일까? 과중업무와 박봉,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복지사들을 지치게 하고 한 때 꿈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복지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

2004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용시설은 46.5시간, 생활시설은 58.5시간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수치일 뿐 실제 일선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씩 6일 이상의 과중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한다(D 미디어).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월차, 연차를 내기가 힘들며, 근로자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도 모호해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예비 수급자가 나온다는 씩씩한 농담이 나오는가 하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

수’ 라고 한다.

이러한 업무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삶과 가정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직’, ‘절망’, ‘소진(burn out)’이란 수식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얼마전 사회복지사를 위한 쉼 프로그램을 위해 욕구조사를 하던 중 만난 김윤희 사회복지사의 한 마디가 가슴에 남는다.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들도 정말 쉴 수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세상 어떤 직업보다 더 보람되고,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한다. 때론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들의 작은 지원으로 변화해가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들을 볼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한 번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에 감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음지에서 일하는 천사’ 라고 치켜세우기 전에 이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 직분에 맞는 처우를 받으며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 안전망이 확보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격한 업무에 시달린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랜드 복지재단과 중부재단, 아름다운 재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부재단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쉼을 통해 refresh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안식월 지원사업인 <내일을 위한 休>를 전개한다. <내일을 위한 休>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단순 봉사자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선도자로서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안식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제도마련의 계기(initiative)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과중업무와 저임금, 열악한 조건으로 쉼을 가져보지 못한 사회복지사와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게 인력대체 비용으로 1인당 1,000,000원 지급과 실무자가 안식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실무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5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안식월(1개월)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랜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 Refresh Tour>라는 프로



▲ 제8회 이랜드복지재단 Refresh Tour

그램을 통하여 업무 때문에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회복지사들에게 쉼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의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가족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 중부재단

제2회 안식월지원사업 <내일을 위한 休> 지원

### ■ 지원대상

① 과중업무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쉼을 가져보지 못한 사회복지 실무자

②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자

### ■ 지원방법 :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약 20,000,000원

※ 기관별 최고한도금액 1,500,000원

① 사회복지 실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인력대체비용 최고 1,000,000원 지급

② 사회복지 실무자 개인 - 휴식비 최고 500,000원 지급

※ 3년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기관 내 근무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에 대한 안식월 지원을 약속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년간 중부재단의 지원이 끝난 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안식월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사회복지

사들에게 안식월(1개월) 제공

■ 문의 : 중부재단 02-2191-7550

##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복지재단 「제9회 Refresh Tour - 사회복지실무자 가족 쉼과 회복」

■ 장소 : 설악산 켄싱턴 스타 호텔

■ 기간 : 2006년 7월 4일(화) ~ 7월 7일(금) 3박4일간

■ 내용 : 설악산, 워터피아에서의 가족 여가시간과 부부관계 세미나 등

■ 참가회비 : 3만원(가족당), 복지기금으로 사용

■ 지원대상

① 아동·청소년관련 그룹홈, 쉼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혹은 조건부 생활시설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현재 재직 중인 분

② 사회복지 실무자로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

정부 인건비 보조가 없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경우

■ 문의 : 이랜드복지재단 02-2012-5243